

〈特 輯〉

1976年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大會에 바란다

大會 誘致는 자랑스러운 일

金 南 碩

啓明大 圖書館長

먼저 IFLA 大會를 開催하게끔 協力하여주신 聯盟本部와 特別히 이일을 爲하여 物心兩面으로 수고하여주신 關係者와 誘致에 힘써 주신 분들께 感謝의 말을 드려야 하겠다.

이런의 IFLA 大會의 誘致 成功이 1969年 5월에 아시아 太平洋地域 圖書館國際會議가 서울에서 開催된데 뒤이어 韓國의 圖書館 活動이 國際적으로 직접 紹介되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후 1971年 英國의 리버풀에서 聯盟總會를 가질 때 아시아地域에서의 IFLA 大會 開催에 대하여 意見이 交換됨에 따라 이에 힘입은 韓國代表들이 76年 IFLA 大會의 韓國 誘致 計劃을 成案하여 圖書館活動의 國際的 紹介와 國內관심의 増大를 꾀하였다. 1973年度 第39次 總會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積極的으로 힘쓴 結果 1974年 東京에서 열린 聯盟理事會의 滿場一致로 韓國開催가 議決되어 한국 도서관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의 誘致가 반드시 우리 나라 圖書館界의 完숙한 立場에서 마련된 것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대견스럽다는 생각과 더불어 제대로 되어있어야 할 韓國 圖書館의 發展이 아직도 미치지 못한 山積한 問題를 생각할 때 송구스런 생각도 앞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本大會를 主管하는 團體는 말할 것도 없이 韓國 圖書館人들의 모임인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이다. 그러나 協會自體가 國際大會를 誘致하기에는 다수의 問題點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는 財政的인 能力에서 뿐만 아니라 外的으로도 大會를 수행할 協會의 施設이 말이 아니다. 한 나라의 圖書館界를 代表하는 協會가 獨立建物하나 갖지 못하고 國立中央圖書館의 地下層 구석방에서 大會를 主管하고 손님을 받아야 한다는 點에서 圖書館人으로서 그보다는 이 나라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外國人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現實임은 말할

것도 없다. 圖書館의 充實度는 곧 그나라의 文化水準과 밀접한 關聯性을 갖고 있으며 國家發展의 必須的條件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 機會를 통해 우리들의 現實을 냉정하게 살펴 볼줄 알아야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期間이나마 그 동안이라도 獨立된 建物을 마련하여 나 보란듯이 몇몇하게 大會를 主管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새삼 얼마남지 않은 期間이나마 大會를 爲한 圖書館人으로서의 마음가짐과 內外的인 여러 가지 條件의 充足을 爲하여 萬全을 기해야 하겠다. 그래서 IFLA 大會의 誘致가 우리 圖書館界의 成長에 커다란 계기가 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通해서 舉國的인 行事的 成果가 內部的인 充實에서 비롯되어 國外的으로 빛내어 질 수 있어야 하겠다. 이제 1976年 IFLA 大會의 開催를 앞두고 本人이 바라는 바를 몇가지로 추려서 披瀝해 보고자 한다.

1. IFLA 定款 第二條에 明示된 聯盟의 精神에 忠實할 수 있는 萬般의 準備를 갖추자.

① 例년에 보면 IFLA 大會에서 거의 우리 나라의 論文이 發表되지 않았는데 이번 機會에 開催國의 忠實한 研究論文의 發表가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各 分科委員會마다 發表할 모든 主題에 對한 論文들에 對하여 充分한 對備가 있어야 하겠다.

② 97個 會員國 代表들이 韓國의 圖書館界를 理解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協力을 얻기 爲하여서는 우리가 보여주고 알려주고 도와 주어야 할 것을 分明히 알고 있어야 하며 同時에 우리가 國際적으로 얻어내야 할 要素가 무엇인가를 細密히 分析하고 整理해 두어야 한다.

2. 政府와 國民에게 圖書館의 重要性을 널리 認識시키고 보급시키는 機會로서 充分히 善용해 주기 바란다.

① 아직도 韓國의 圖書館이 國民에게 잘 認識되어 있지 않고 冊이나 빌려주고 保管하는 場所로 알고 있으며, 그나마 中·高等學生들의 入試用이나 大學生들의 就職을 爲한 工夫하는 場所로 提供되는 일이 大部分인데, 이번 機會에 좀 더 올바른 認識을 시켜 國民의 擁護와 支援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번 大會의 韓國誘致를 爲하여 政府當局의 깊은 配慮와 協助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큰 行政的·財

政의支援을 恒久的으로 얻어 낼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協會의 建物도 마련하는 契機가 되었으면 좋겠다.

3. 韓國의 現實을 大會에 參席한 全會員國 代表들에게 正確히 알려 주기 爲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關係當局과도 緊密한 協助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韓國의 文化·藝術 그리고 社會·經濟의 過去와 現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랑스러운 文化民族의 矜持와 함께 경제전선과 世界平和를 爲해 努力하는 우리 國民들의 참된 모습을 認識시켜주고 國際間的 理解增進을 위한 좋은 契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우리 圖書館界의 發展에 새로운 轉機가 되도록 하자.

①이러한 國際大會를 맞아 圖協을 비롯한 全 圖書館界가 內的인 모순이나 意見의 不一致에서 크게 團結하여 주기 바란다.

②學術的인 分野에 있어서도 우리의 末備했던 點을 補充할 수 있도록 새로운 覺省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③우리는 過去에도 聯盟에 加入만 해놓고 10餘年間이나 參加못한 經驗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圖書館界도 國際的 모임에 積極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恒久的인 代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IFLA의 地域事務所(Regional Office)가 韓國에 設置되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

이러한 地域事務所는 國際成人教育協議會(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와의 協同으로 東部 아프리카에 設置될 可能性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設置되어 韓國 圖書館界의 對外伸張을 積極化 시킬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6. 앞으로든 年 1回 程度는 IFLA의 地域會議나 小規模의 圖書館關係 國際會議를 자주 열어서 國民과 政府의 關心과 熱意가 식지 않고 또한 우리 圖書館人이 주는 方法도 아울러 생각해 주기 바란다.

以上으로 1976年 IFLA 大會의 韓國開催를 앞두고 바라는 바를 대충 簡略히 적어 보았으나 이 이상에도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 할 點은 많다. 即 韓國圖書館協會와 圖書館界를 理解시키기 爲한 刊行物 發刊에도 좀 더 關心을 기울여서 例年의 大會에서 不足했던 點을 補充해야 할 것이다. 特히 北傀가 代表를 派遣하여 그들의 상투적인 宣傳活動을 벌일 경우 그 對策도 講究해 두어야 할 것이며 各國의 代表들에게 最大限으로 不便이 적고 그들에게 인상깊고 뜻 있는 大會가 되도록 細心한 곳까지 注意를 기울여 準備해 두어야 할 것은 더 말할 必要조차 없을 것이다.

그 나라의 社會發展과 文化의 尺度는 圖書館의 發展

과 병행하고 知識이 隨伴되지 않는 政治體制는 부패를 자아내고 知識이 隨伴되지 않는 經濟成長은 貧富의 差를 招來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런 機會에 國家的인 歡迎과 關心을 通해서 大會에 參加하는 97個 會員國 代表들에게 韓國의 社會發展과 經濟成長이 知識을 基盤으로 하는 安定된 社會임을 보여야 하겠다.

圖書館人들의 積極的인 參與를

李 丙 洙

國會圖書館 圖書課長

1. 國際大會까지 成長

1976年 바로 來年에 우리 나라에서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가 열리게 된다고 한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開催되는 圖書館關係의 國際大會이다. 1927年 同聯盟이 스코트랜드에서 創設된 以來로 줄곧 구라파에서 會議를 開催하다가 昨年(1974)에 美國으로 건너가 40次 總會를 開催하게 된 것이 처음으로 歐羅巴 以外地域에서 한 會議이며 우리 나라에서 來年에 이 大會를 열게 되었으니 이 會議를 誘致하는비 큰 힘이 든 모양이다. 여러 나라에서 그럴듯한 理由를 들어 서울에서 大會를 여는 것을 反對를 하였다고 한다. 유럽에서 發生하여 主로 그들이 中心이 되어오던 會議가 그 地域을 떠나서 하자니 그것을 反對하는 많은 理由가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 나라도 그들이 보기에는 선 듯 와 줄 수 있는 條件이 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다. 그 證據로서는 1974年 5月 東京에서 開催한 IFLA理事會는 韓國에서 1976年 大會를 開催키로 決定하였다가 同 9月 파리에서 同 理事會는 韓國에서 大會를 하는 것을 保留하게 되었으며, 1974年 11月 워싱턴 總會 때의 理事會에서 겨우 確定이 된 過程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이 會議를 誘致하기 위하여 圖書館協會를 中心으로 관계되는 분이 큰 活動을 하였다고 한다. 가만히 앉아서 들고만 있는 나로서는 그분들의 勞苦에 감사한다.

그간 여러 가지 國際의 性格을 띤 會議가 서울에서 있었다. 國際 펜클럽 大會를 비롯하여 國際的인 여러 學術大會 및 아시아 映畫祭 등등이다. 圖書館界에서도 지난 1969年에 아시아 太平洋地域 圖書館國際會議가 있었고 이번에 1976年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를 서울에서 갖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圖書館活動이 世界의 水準에 이르러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開發途上國에서 大會를 열면 그 地域의 圖書館界와 國民과 政府 등에 圖書館의 重要한 意義를 깨우쳐 주고 그 發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最終 結論이었다고 한다. 圖書館

의 發展 等에 대하여 거의 無感覺한 우리 나라의 現狀을 생각할 때 이 大會의 開催는 참 뜻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그 意圖가 開發途上國에서 圖書館大會를 開催하는 것이 그 地域의 圖書館發展에 寄與할 것이라는 事實이 서울을 開催地로 決定할 수 있었던 理由라고는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없이 誘致하려고 하였다면 不可能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認定하는 程度의 世界大會開催를 할 수 있는 最低의 水準이라도 되어 있지 않았다면 不可能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國際大會를 할만큼 最低水準이나마 成長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대견한 것이다.

97個國 616個機關의 會員(1974年末 現在)을 가지며 大會에는 1千餘名 以上이나모인 例가 있는 國際圖書館協會聯盟의 大會는 어느 것 보다는 큰 巨大한 國際大會이며 이러한 大會가 韓國에서 열린다는 것은 圖書館界뿐만 아니라 學術, 文化, 藝術界 그리고 온 나라가 關心을 가질만한 價値있는 大會이다. 그러나 이런 大會가 열리게 된다고 그저 기뻐하고 興奮할 것만은 아니다.

2. 大會에서 專門分野에 參與

이러한 大會를 끌어 들인 勞苦를 위로하거나 그 巨大함을 감탄할 틈도 없이 바라는 것은 이 會議를 失手없이 맞이하고 끝내야겠다는 것이다. 言語와 風俗과 思考方式이 다르고 生活環境과 水準이 다른 사람들이 世界各國에서 大多數 參加하게 되는 만큼 그들이 滯在하는 동안에 接待를 소홀히 하거나 大會의 進行에 있어서 不便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의 往來나 短期間의 國內生活에 不便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便宜를 보아 주어야 할 것이고 會議組織은 細密하고 詳細하게 하여 提起된 問題를 充分히 檢討 論議하고 決定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IFLA의 韓國大會에서 論議된 主題나 大會의 諸般狀況이 앞으로의 IFLA 推進事業이나 그 다음에 있을 大會에서 論議되는 主題가 되고 그 基礎가 될만큼 充實하여서 언제나 韓國大會 때의 일이 좋은 意味로 舉論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圖書館界가 아시아 太平洋地域 圖書館國際會議를 가진 經驗과 國際大會에 참석한 人들의 見聞이 이번 大會를 하여 나가는데 큰 役割을 할 것으로 믿지만 館界以外의 學術界 및 關係要路에게도 諮問을 구하는 등 充分한 準備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會議의 準備를 합과 同時에 絕對로 疎忽히 할 수 없는 것은 國內의 圖書館界에서 이 會議의 各專門活動分野에 어떻게 參席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充分히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世界各國에서 圖書館人이 多數 參加하여 圖書館關係 主題에 대하여 高度의 意見を 提起하고 討論하고 決定하는 國際大會에서 場所의 提供과 그것의 圓滿한 運營管理로 끝맺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重大한 것이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國內의 圖書館人이 많이 參與하여서 水準級의 役割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圖書館大會가 열릴 때는 參加에 必要한 經費關係로 극히 限定된 사람만이 參加할 수 있어 不可能하지만 이번에는 參加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IFLA大會는 誘致하였지만 우리 나라 圖書館의 專門人들이 各專門部門에서 하는 活動이 없으면 本意아니케도 우리 圖書館人의 圖書館關係 知識의 貧困性을 萬邦에 알리는 結果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虛糜盛勢格으로 虛勢를 부릴 必要도 없다고 생각한다. 國內의 圖書館人은 各自 가진 資質과 蘊蓄한 圖書館學의 程度에 따라 着實하게 會議에 임하여 그 充實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FLA大會는 圖書館 및 書誌學 등 모든 情報 서어비스의 諸問題들이 提起되고 論議되는 만큼 愆心으로서 國內의 圖書館人이 各各 該當專門部門의 委員會나 部會에 참석하여 一家見 있는 討論을 하였으면 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積極的으로 參與함으로써 世界的으로 提起되는 圖書館의 諸問題에 우리의 意見を 添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얻은 經驗은 우리의 圖書館發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來訪한 圖書館人들의 우리 館界에 대한 認識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떠한 問題를 採擇하여 할 것인가 하는 것은 各自 個人에게 맡기기로 하고 또한 IFLA大會는 每年 그해에 該當하는 主題가 있기는 하지만 論議는 書誌 및 圖書館을 포함한 모든 情報 서어비스를 論하게 되는 만큼 그것을 여기에 일일이 들어서 말하는 것은 紙面關係로 約하고 그 가운데에서 大會에서 크게 取扱되고 있는 즉 IFLA가 큰 關心을 가지고 推進하고 있는 <世界書誌統整>과 <國家情報 시스템>에 대하여 조금 言及하기로 한다.

①世界書誌統整

世界書誌統整(Universal Bibliographical Control, 略稱 UBC)은 IFLA 專門活動의 最大關心事中的 하나이다. 全世界 出版物에 대한 書誌를 作成하고 그것에 收錄된 圖書가 出版地의 與否에 相關없이 利用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各國에서 出版된 資料에 대한 書誌가 漏落없이 作成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作成되는 書誌는 그 利用이 一國에 限하지 않고, 그 形態도 카아트形 機械可讀形(MARC)등 多樣함으로, 이것은 言語의 障得나 形態의 相異에 따라 複雜함을 可能한 한 피하여 全世界 各國 共通으로 하자면 一定한 國際標

準에 의한 記載方法이 必要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事項들이 UBC가 指向하는 일이기 때문에 UBC 納本制度, 國家書目作成, 書誌記述, 目錄規則, 標準化, 機械化 및 國家의 情報政策 등등의 여러 가지 問題에 關聯되는 것이며, 그러한 탓으로 IFLA의 UBC에 關聯한 事業도 多方面에 미치고 있다. 于先 書誌 및 書誌作成을 위하여서는 書誌委員會(Committee on Bibliography)와 目錄委員會가 그 活動의 거의 全部를 書誌統整에 바치고 있으며, 其他 特殊한 部門으로서는 機械化委員會(Committee on Mechanization), 逐次刊行物委員會(Committee on Serial Publication), 政府刊行物委員會(Committee on Official Publication), 統計 및 標準委員會(Statistics and Standards), 稀貴書委員會(Committee on Rare and Precious Books)와 統本制度和 關聯이 있는 國立 및 大學圖書館部會(Section of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가 世界書誌統整에 그 事業의 一部 또는 重要部分을 바치고 있다. UBC 關係로 IFLA가 그 以外的 機關과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네스코, FID, ICSU(國際學術聯合會議)등이며 이들의 協力下에 UNISIST內에 書誌調整機構을 設置하였고, 그 事業의 하나인 國際逐次刊行物 데이터 시스템(International Serial Data System, 略稱 ISDS)은 書誌統整의 不可缺한 部分을 이루고 있다.

世界 書誌統整의 諸事項中 書誌資料의 記述을 國際的으로 標準化하려는 努力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IFLA의 目錄委員會에서 制定한 「國際標準書誌記述」(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略稱 ISBD)인데 이것을 規定한 目的은 書誌記錄의 互換性 維持와 書誌資料에 대한 言語障壁을 超越한 解釋의 容易化와, 書誌記錄의 機械可讀形으로 變換을 企圖하는 세 가지 點에 있다. IFLA 目錄委員會에서는 「國際標準書誌記述, 單行本用」(ISBD (M))과 逐次刊行物用(ISBD (S))을 이미 出刊하였고 「地圖用」ISBD (maps)과 「音樂用」(ISBD (music)) 및 「非圖書資料用」을 準備中에 있다. 1961年 파리의 目錄專門家會議의 「原則에 대한 聲明」이 圖書目錄規則中 標目的 國際標準化를 위한 것인데 대하여 ISBD는 圖書目錄規則中 記述部門의 國際標準化를 위한 것이다. 파리 聲明後에 各國에서는 그 聲明原則에 따라 圖書目錄規則을 制定하였던 것처럼 이 번에는 ISBD에 따라서 圖書目錄規則의 記述部門을 改正하려고 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美國·英國·캐나다에서는 「英美目錄規則」中 記述部門에 이미 ISBD를 適用하여 그 改正版을 1974年에 出版하였다. (國立中央圖書館「도서관」誌 vol. 30 no. 3. 1975. 3-7에 掲載된 拙譯을 參照할 것) 우리나라에서도 ISBD를 適用하자면 어떠한 問題들이 있는

지 充分히 檢討하여 오는 서울 會議에서 論議하여 必 직한 일이다.

②國家情報 시스템

또 한가지 UBC와 함께 생각하여야 할 것은 國家情報 시스템(National Information System, 略稱 NATIS)이다. 圖書館業務의 一般性和 抱括性을 目的으로 하는 IFLA는 文獻정보關係에서 國際文獻정보聯盟(FID), 文獻정보 保存面에서는 國際文獻館會議(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略稱 ICA), 圖書館規定이나 整理의 標準化 開發이란 面에서는 國際標準機構(ISO), 公共圖書館의 教育的 貢獻이란 面에서는 國際成人教育會議(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 略稱 ICAE)등과 協力關係를 確立하고 있다. 國家情報 시스템 亦是 IFLA가 유네스코와 協力하고 있는 活動中의 하나이다.

國家情報 시스템 (NATIS)은 유네스코 主權로 IFLA, ICA, FID 등이 協力하여 開催된다. <문헌정보, 圖書館, 文書館 組織의 國家計劃에 관한 政府間會議>에서 그 概念이 成立된 것이다. 유네스코는 情報關係에 많은 關心을 가지고 여러 가지 會議를 開催한 일은 있었으나 圖書館, 文書館, 文獻정보의 活動을 一括한 會議로서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 會議에서 各會員國에게 國家情報政策樹立과 計劃의 方法을 提示하고, 그 骨格을 提示하였던 것이다. 즉 各國은 文獻정보, 圖書館, 文書館 서비스의 統合된 國家情報政策과 그러한 政策과 計劃은 國家綜合發展政策과 計劃에 結付하고 統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NATIS의 概念은 圖書館의 發展을 바라는 IFLA의 呼訴이기도 한 것이다. 國民의 教育이 義務化되고 이것의 教育責任을 政府가 지는 것과 같이, 政府는 어떠한 位置에 있는 國民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圖書館, 文獻정보, 文書館 서비스를 통한 情報를 最大限으로 利用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서 NATIS는 우리의 圖書館, 文獻정보 등 其他 情報 서비스 部門의 政策 및 計劃樹立에 있어서 크게 의지하여야 할 시스템이며, 큰 關心을 가져야 할 것이기도 하고, IFLA도 重要한 課題로 생각하는 것이니 (IFLA. Draft Medium-term Programme 1975-1980), 이것에 대한 特別한 討議를 기대할 만한 것이며 그러자면 많은 準備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問題에 限한 한 圖書館界 뿐이 아니라 關係 要路에 있는 분들도 特別한 關心을 갖어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이번 國際大會를 契機로 하여 우리나라의 圖書館發展을 위한 길도 模索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圖書館에 대한 政策이나 發展을 위한 財政 配當은 모두 滿足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事情이 이

方面에 滿足스런 支援을 할만큼 餘裕가 없다는 理由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文化面의 他分野에 대한 關心과 比較할 때 그것이 圖書館의 重要性만 못한 것 같은 部門인데도 더 많이 資金이 投與되는 일이 없지 않다. 情報 서어비스에 대한 資金의 投與結果가一刻에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情報 서어비스는 모든 部門의 基礎가 되며 하나의 重要한 產業的 價値를 가지는 國家發展計劃에 큰 役割을 한다는 것이 事實일진배이 方面에 대한 資金의 大幅的인 增加가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한다. 1973年 大英圖書館을 發足시킨 英國에서는 그 圖書館의 英國人만이 利用하는 圖書館이 아니라 世界人이 利用할 수 있는 世界의 圖書館 이라고 하였다. 이미 圖書館이 하나의 孤立된 圖書館이나 한 나라의 圖書館만으로서는 그 役割을 다할 수 없는 時代다. 國內外의 圖書館이 相互依存하고 協力을 하여야 하며, 그 活動을 充實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世界에서 適應하자면 우리의 個個圖書館은 더 커져야 하고 더욱 充實한 活動을 하여야 한다. 이 때에 圖書館을 비롯한 國內情報活動 全體를 通한 綜合的인 診斷을 하고 그 發展策을 摸索하고 計劃을 세워 早速히 實踐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다하기 위하여 1976年 IFLA大會 以前에 圖書館界人士와 關係要路에 있는 分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圖書館發展策을 論議하고 그 計劃을 作成하여 提示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또 하나의 所望이기도 하다.

3. IFLA大會를 發展의 契機로 하자

끝으로 이 글의 끝에 한마디 添加하고 싶은 것은 우리 圖書館界에는 이러한 大會를 치르는데 있어서 세밀하고 자상하게 계획을 세우고 틀림없이 일을 하여 갈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지만 數 많은 外國 손님을 맞이 하게 되는 마당이니 直接大會의 일을 맡은 분이나 아니나를 不問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意見을 말하고 더욱 協力하여 이 大會를 훌륭하게 끝내야 하겠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 大會를 소홀히 생각하고 無關心하게 대하여서는 미약한 처지에 있는 우리 圖書館이 스스로 더 미약하여지는 結果를 招來하는 기회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번 大會를 契機로 하여 飛躍하여야겠고 成長하여야 겠기 때문이다. 그것이 또한 IFLA大會를 發展途上國에 는 여는 취지이기도 하지 않는가.

독서하는 생활속에
밝아오는 우리 사회

韓國 圖書館發展의 機轉

尹 泳 大

카톨릭醫大司書課長

1976年 6월에 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大會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意義가 큰 것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그 큰 國際會議을 우리 나라에 誘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圖書館協會가 그만큼 成長하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때 자랑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과연 世界先進國들의 圖書館人들이 우리 나라의 圖書館實情을 와서 보고 무엇이라고 評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도 앞선다.

內的인 充實을 期하지도 못하면서 國際大會를 誘致한다는 것은, 內的인 充實보다는 外的인 宣傳效果만을 重要視하는 것이라 빈축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커다란 國際會議을 서울에서 開催함을 契機로 하여 圖書館人도 한층 더 努力하여야 할 것은 물론 一般國民이나 政府當局도 좀 더 圖書館의 重要性을 認識할 수 있는 契機가 되기는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 우리 圖書館人들도 最善을 다하여 이 國際大會를 훌륭히 마칠 수 있도록 舍心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圖書館界의 發展을 爲한 所望이 세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IFLA大會를 서울에서 開催하는 것을 契機로 바라고 싶은 것을 對象別로 區分하여 記述하여 보겠다.

1. 政府當局에 바란다

政府의 行政組織中 圖書館을 專擔하는 部署가 없다는 것 自體가 圖書館에 대한 重要性을 無視하는 證據라 생각되어 질 수 있다.

筆者가 日本醫學圖書館協會 總會에 參席하였을 때 文部省의 情報圖書館課의 職員이 直接總會에 參席하여 總會에서 發議되는 質問이나 建議事項에 대하여 直席에서 解明하고 또 上部에 建議하여 處理하겠다는 등 答辯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부러웠다. 世界各國의 圖書館人들이 來韓하면 韓國의 圖書館政策을 理解하기 爲하여는 政府의 行政組織을 알려야 할 것은 分明하다. 그 答辯으로 文教部에 屬하지만 專擔組織은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亡身스러운 일이다. 局이 아니면 最少한 課라도 하루 빨리 新設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國家가 富強하여지면 따라서 圖書館도 自然히 發達한다는 알취가 바뀐 생각을 脫皮하고 國家發展을 이룩하려면 圖

書館의 發展이 先行되어 國家發展에 必要한 知識開發의 手段으로서 圖書館의 發展에 政府로서 最大의 配慮와 關心을 갖게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圖書館의 發展을 爲하여서는 圖書館의 三要素中 무엇하나라도 重要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人的要素가 筆者의 見解로는 가장 關心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莫大한 豫算으로 많은 資料와 훌륭한 建物을 갖추어도 管理하는 사람이 無能하거나 誠意가 없으면 모든 資料는 死藏될 것이다. 어느 한 圖書館의 司書의 任務는 自己가 屬하고 있는 機關의 資料만을 管理하는 것만이 아니고 他機關과의 協力으로서 全國의 나아가서는 全世界의 資料를 利用할 수 있도록 努力을 하는 것이 보다 重要한 任務라고 생각한다면 資料보다도 人的인 問題가 더 重要性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全然 根據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能力을 가지고 있어도 社會的인 認定 또는 金錢의 待遇가 만족치 못하면 그 能力이 發揮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司書들의 待遇問題가 法的으로 뒷받침이 되어 有能한 司書들을 育成하여야 할 것이다. 待遇가 훌륭하면 有能한 人材가 司書의 職種에 흥미를 가지고 모여 들 것이고 또한 계속 研究하는 風土도 造成이 될 것이다. 이는 모두 政府의 積極的인 法的 뒷받침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다.

2. 協會에 바란다

이런 큰 國際會議을 서울에서 開催함에 있어 國家나 우리 協會의 體面이 損傷이 되지 않도록 緻密하고 餘裕하게 計劃을 樹立하고 全會員이 總動員되어 努力하도록 協會가 主導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行事を 任員 몇명이 하였다는 印象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契機가 全會員의 參與意識을 줄 수 있는 機會로서 大同團結하여 協會의 發展도 摸索할 수 있는 契機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 準備委員會를 構成함에도 館種別代表 또는 地域代表, 學界代表, 理事中 몇名하는 式으로 構成을 한다면 一般會員들도 좀 더 參與意識을 갖게 되고 좀 더 關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協會는 恒常 全會員의 協會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機會에 平素에 생각했던 筆者의 意見을 여기에서 밝히자면 現在 協會外에 圖書館學會가 따로 있다. 勿論 따로 있어서 양쪽이 다 잘되어 나간다면 問題삼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財政적으로나 人的으로 貧困한 우리 實情으로 同質의 것을 二元化 할 必要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圖書館協會라는 團體는 營利團體가 아니고. 學術團體의 性格이며 더우기 協會의 專門委員會는

完全히 學術的 機構로 協會와 學會를 同質의 團體라 생각하고 있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學會活動을 協會안에서 함으로서 協會도 發展하고 其 役割의 價値가 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 現專門委員會를 좀 더 學術的인 編制로 改編하고 實務委員會를 따로 新設하여 事務局의 業務遂行을 뒷받침하게 되면 더 좋은 效果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前述하였듯이 同質의 活動을 二元化하는 것 보다는 統合함으로서 圖書館界의 發展에 더 큰 貢獻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協會의 會員은 個人的 명예나 功을 내세우기 以前에 協會와 圖書館界를 위하여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協力할 것은 協力하여 全會員이 分裂이 없는 強力한 協會를 이룩하도록 IFLA 大會의 誘致를 契機로 努力하는 것을 提議하는 바이다. 또 한 가지는 圖書館業務에 從事하는 司書들의 補修教育과 같은 講習會를 자주 開催하고 圖書館의 業務遂行에서 매우 重要한 外國語講習 等を 協會主催로 자주 가지어 現職圖書館人의 資質向上에도 努力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3. 圖書館人들에게 바란다.

圖書館界의 發展은 當局의 뒷받침, 協會의 活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現在 待遇가 滿足치 못하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有能한 司書가 되도록 努力하여 果然 司書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게 되면 社會的, 金錢的 待遇가 改善될 수도 있을 것이다. 環境만 탓할 것이 아니고 司書도 역시 研究하고 계속 學問하는 學者라는 觀念으로 大學院에도 入學하는 등 自己 能力開發에 最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司書는 적어도 하나 以上의 主題專門家 (Subject Specialist)가 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美國의 大學 및 研究圖書館 基準委員會(ACRL Committee on Standards)의 案에 依하면 司書는 계속 碩學할 수 있도록 金錢的 時間的으로 後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勿論 우리 實情으로는 所屬되어있는 當局에서 그런 후원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나 自身이 努力하여 자기 돈으로 없는 時間이나 내어서라도 계속 學位도 받고 工夫를 한다면 언젠가는 專門職으로 認定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모든 條件이 좋아질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時期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보려는 努力이 必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司書가 分類, 編目하는 技術만을 가지고 專門職 待遇를 받으려고 要求하는 것은 좀 認定받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學校 및 研究圖書館을 爲한 案을 例로 한 것이다. 公共圖書館이라고 하여 例外는 아닐 것이며 여러

分野의 主題專門家들이 모여 公共圖書館에서 奉仕活動을 한다면 이 以上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4. 맺음 말

以上에서 記述한 것은 請託받은 論題와 關係가 먼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國際大會를 우리 나라에서 開催됨을 契機로 우리 圖書館界가 좀 더 發展되어있는 狀態를 世界各國의 代表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心情에서 우리의 發展을 새삼스러이 다짐하는 뜻에서 筆者 나름대로의 생각을 記述하여 보았다.

이 大會의 顧問으로 社會名士들을 많이 추대하여 앞으로 圖書館界의 發展에 物心兩面으로 協助를 얻을 수 있는 契機가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또한 매스 미디어를 最大限 利用하여 이 大會를 널리 紹介하여 一般國民들도 圖書館의 重要性을 再認識하도록 弘報活動에도 힘써야겠다는 생각이다.

圖書館 重要性의 認識 契機

裴 炫 宗
祥明女高 圖書館長

1974年 IFLA 總會에 參席할 기회가 있어 우리 나라의 圖書館實情을 알리며 世界各國의 文化 情報交換에 많은 知識을 얻고 돌아 왔다. 76年 IFLA 大會가 우리나라에서 開催된다는 반가운 消息에 接하여 74年度 IFLA 大會에서의 見聞을 土臺로 76年度 IFLA 大會에 바라는 바 所感을 몇 가지 적어 보려고 한다.

圖書館의 活動이 하나의 學問의 分野속에서 成長되어 온 지는 오랜 이야기이지만 아직 우리의 圖書館界는 先進國의 圖書館活動分野와 比較하여 볼 때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 圖書館業務는 一般의으로 “책을 읽는다”는 單純한 概念에 그 칠 것이 아니다. 오늘의 圖書館은 政治·經濟·文化·教育에 걸쳐 廣範圍하게 紐帶를 맺어 한 國家를 超越하여 더욱 높은 次元에서 國家觀 乃至 世界觀을 定立하는 不可分의 要素가 되어 活力을 불어 넣는 源泉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國家의 降盛發展의 限界가 한 民族에게 주어지는 責任이 바로 圖書館의 擴張 或은 運營의 妙에 依해 左右된다고 보아 지나친 말이 아니다. 精神의 糧食이 圖書館을 產室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前提한다면 充實한 教育은 學校教育을 통해서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며 좀 더 多角的인 領域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45年 以後 4半世紀 우리는 우리의 國力伸張과 民族의 精神觀의 定立을 爲해서 많은 逆境을 이겨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此際에 76년에 IFLA 大會가 우리나라에서 開催된다는 消息은 우리에게 커다란 喜報이며 그 意義가 자못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政府樹立以後 우리는 世界到處에서 모여든 各國代表들과 人種이나 思想 理念을 超越하여 國際會議를 多方面에 걸쳐 開催하여 온 바 적지 않지만 今般 圖書館關係 國際會議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것은 이러한 大規模의 會議를 우리의 外交의인 勝利로 받아드리기 前에 IFLA 大會 開催를 誘致할 만큼 우리 나라의 圖書館이 成長하였음을 如實히 證明하여 주는 同時에 圖書館協會 關係者들의 유치를 위한 노력에 感謝를 드린다.

더우기 近 50年의 歷史를 지닌 IFLA이긴 하지만 1955년에 加入한 韓國圖書館協會는 짧은 期間 동안에 成長을 하였지만 아직도 幼兒期의 過程을 脫皮 못한 成長過程에서, 97個國이 넘는 會員國 代表가 서울에서 한 자리에 놓여 思想과 理念을 超越하여 圖書館相互間의 紐帶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書誌交流를 通한 人類文化向上과 國際相互間의 理解를 增進하여 더욱 次元 높은 圖書館學과 圖書館經營에 있어 幅 넓은 相互交換을 함으로써 斯界의 發展에 寄與하는 好機인을 勘案한다면 76年度 ILFA 大會의 서울 開催는 그 意義와 價値가 자못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政治 經濟 文化 教育의 學術의 分野 등 모든 分野에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우리 나라 圖書館界가 今般 ILFA大會 誘致로 韓國圖書館活動의 中興의 活力素가 되어 國民에게 普遍化되고 立案者들을 啓導시키는 好機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더우기 國土가 分斷된 韓半島의 現實을 機會만을 노리는 北傀의 온갖 蠻行을 LIFA 大會에 參席하는 代表들에게 알리며, 우리의 確固한 民主路線과 平和主義思想을 아울러 보고 듣게하는 契

美 週刊財政紙 國內配布

韓國海外出版物株式會社は 다우·존스社와 販賣契約을 체결, 當局의 配布許可를 얻으므로 朝日新聞의 英字 자매지 아사히·이브닝·뉴스 등의 新規許可品目 51種을 포함한 外國新聞 57種, 外國年鑑 286種, 外國雜誌 503種을 獨占供給하게 되었다.

購讀問議 (75-5401~4)

機가 될 것이다. 또한 97個國 代表들이 모이게 되는 이번 會議에 앞서 우리는 于先 圖書館 關係人만이 이 事業에 從事하고 圖書館業務를 擴充 發展시킬 것이 아니라 온 國民이 合心 團結하여 會議開催成果에 따른 하나의 結實을 보아야 하겠다.

그렇게 하여 會議에 參席한 世界各國의 文化活動의 中樞的인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文化人 學者 그리고 圖書館에 從事하는 關係人들에게 過去 우리의 爲政者들이 그러하였고 各界著名人士들이 國內外에서 그랬듯이 虛飾없는 發展된 韓國의 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온 겨레가 積極 大會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겠다. 76年度 ILFA大會 韓國開催의 意義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圖書館事業 發展에 局限시키는 狹少한 目的達成을 넘어 크게 次元을 넓혀서 우리에게 다시 없는 機會로 받아들여 學國的인 行事로 끝맺음을 보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各國의 圖書館學者 書誌學者 그리고 文化人들이 모이는 이번 大會가 유럽地域

에서 開催되었던 前例를 깨뜨리고 아시아地域에서 처음 開催된다는 이 朗報가 우리에게 커다란 收穫임을 認知하며 우리의 現實을 足히 깨닫아 圖書館發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國威宣揚과 國際間的 理解增進에 크게 寄與할 固執한 橋頭堡를 마련하며 韓國文化를 찬란히 꽃피우게 하기 爲한 크나큰 밑걸음을 만들기에 吝嗇하지 말아야 하겠다.

76年度 ILFA 大會 韓國誘致는 韓國圖書館事業 發展의 발판을 이룩하는 好機르만 알아서는 안되겠다. 各分野에 걸쳐 全體의 韓國을 紹介하는 機會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

97個國 代表中에는 韓國을 찾아온 經驗이 있으며 이미 우리와 外交關係를 수립하고 있는 友邦도 있는 反面 우리와 斷絶된 속에서도 思想과 理念을 달리하는 赤性國家가 있다는 것을 充分히 認知하여 이 機會에 그들에게 한국 圖書館事業은 勿論 發展하는 韓國의 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게 되기를 거듭 바란다.

「不條理 有條理」

말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주고 받는 용어의 뜻이 상호간에 이해되고 그 의사가 소통만 된다면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같은 말의 뜻이 源意味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일 때 그리고 그 말이 결코 듣는 사람이거나 하는 사람으로서 유쾌하지 못한 말일진대 우리는 모두 이런 그릇된 용어가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대체로 이 지구상에는 2,800여종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중 점차로 新造語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통용되는데 저속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름하여 부조리라는 용어만하더라도 근 일년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조석간 신문에 열치도 좋게 자주 등장함을 볼 때 나는 한 때 이 나라에서 베스트 셀러가 되어 독자를 흥미하는 「까뮈」의 작품 “이방인”을 생각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실존철학의 대명사도 浮上된 것이 부조리라는 용어 absurde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지음 공무원 社會를 지탄하는 代名詞와 같은 부조리라는 말이 그 源意味와는 전혀 다르게 쓰이는데 어째서 이처럼 同一한 표기의 用語가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부조리라는 用語를 대할 때 무엇보다도 「까뮈」의 씨지프스(sisyphos)의 신화를 생각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의 부조리는 “인생에서 의의나 희망을 찾아 볼 수 없

다”는 의미로서 부조리는 세계의 속성이고 인간의 속성이 아니며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 그 자체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해를 거절하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호소하며 감동을 주고 있는 명석한 이해에서 願望과의 대결인 것이다. 혼란, 암흑, 죄악 등을 神의 힘과 개성의 도덕, 윤리로서는 제어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서 오는 반항과 부정의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은 자칫 감상주의나 厭世的인 思想으로 알기 쉬우나 이와는 달리 암흑과 혼란의 적극적인 存在證明이며 不合理的인 現代에 대한 의식과 이에 대한 의식숙의 반항을 통하여 적극적인 삶의 출발을 다루려고 하는데 高次的인 不條理의 의의가 存在하는 것으로, 「까뮈」의 小說 “異邦人”이 그 典形的인 것이다.

그런데 實存哲學의 代名詞처럼 쓰이는 不條理가 오늘 날 마치 公務員 社會와 함수관계를 가진 用語로 專用되고 있어 그 條理에 닿지않게 쓰이고 있는 不條理라는 말이 제발 하루 속히 우리의 주변에서 살아졌으면 싶다.

한 때 不正·腐敗라는 어휘가 우리의 社會에 만연되더니 이제 不正 腐敗는 사라지고 代身 이방인속의 不條理가 아닌 異稱·不條理가 나타났다는 말인가. 제발 正直과 有條理가 우리의 社會에 快히 引用되었으면 한다.

—有條理 不條理 不—

(梁泰鎮：國立中央圖書館司書官)